

주현절 후 다섯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5<sup>TH</sup>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1년 2월 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12 장 “너 성결키 위해” (새 42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6 번 시편(Psalm) 15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Luke) 5:12-16	고민영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13) – 정결함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With Purity)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희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습관적인 죄 가운데 머물렀고, 삶이 뒤따르지 못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왜곡되고 단단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의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회개와 진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 3:7-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한글개역 눅 5:13)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And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NIV Luke 5:1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7 (주일)	2/8 (월)	2/9 (화)	2/10 (수)	2/11 (목)	2/12 (금)	2/13 (토)
본문	창40 막10 요6 롬10	창41 막11 요7 롬11	창42 막12 요8 롬12	창43 막13 요9 롬13	창44 막14 요10 롬14	창45 막15 요11 롬15	창46 막16 요12 롬16

수/요/성경/공부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2/10 오후7:30)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요일3:15-19)
토요 새벽기도회 (2/13 오전6:30)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시25:1-14)

지난 주일(1/31)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12) – 영과 진리로” (요 4:19-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요 4:24)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하여 직접 말씀해주신 구절이기에,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작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저) 신령하게, 또는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의도는 (단지) “신령해 보이도록, (또는) 정성을 다하라”는 (어떤) 예배자의 태도나 자세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1)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의 대상) 2)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의 방법) 3)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1)우리가 예배(경배)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며, 2)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편의)을 좇는 예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는 예배이어야 하며, 또한 3)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거나, 성전의 뜰만 밟고 끝나거나, 또는 사람에게 보이기를 위한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